

numbers 제 108호



주요 내용

2021.08.20

1. 이번 주 주제 : [2021년 상반기 한국 교회 코로나19 추적 조사]

- 코로나19 종식 후, '예전처럼 주일 현장 예배드리겠다' 78%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전직 대통령 사면] 우리 국민,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높아!
- [취약 중소기업 실태] 2020년 영업 이익으로 대출 이자 총당 못하는 '취약 중소기업' 51%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코로나 종식 후, '예전처럼 주일 현장 예배드리겠다' 78%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에 온라인예배가 들어온 후 1년을 넘기면서 이제는 온라인예배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다. 이번 6월 코로나 추적조사 결과, 온라인예배 만족도가 무려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교회 참여 의향률이 2020년 41%에서 2021년 48%로 증가했다. 실제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개신교인 2명 중 1명 정도가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을 보인 것은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 코로나 이전에 교회 출석하다가 지금은 주일날 온라인예배 조차 드리지 않는 사람이 10% 정도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교회를 예전처럼 다시 출석하겠냐고 질문했더니 78%정도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겠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22%는 아예 이탈했거나 온라인 영향권 아래로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번 조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예배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개신교인의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잘 활용하지 않는 소형교회에서도 교인의 64%가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확실히 시대의 빠른 변화를 실감하는 수치들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108호는 2021년 상반기 코로나 한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의 변화의 흐름을 추적해 보았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성인 남녀
- 표본 추출 방법 :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추출
- 표본 크기 : 1,000명(유효표본)
- 표본 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3.1%p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조사 일자 : 2021년 6월 17일 ~ 6월 30일(14일간)
- 조사 의뢰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 목회데이터연구소 /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 조사 기관 : 지앤컴리서치
- 조사 시점 : 본 조사는 수도권 방역 4단계 조치(2021.07.18.~) 이전인 예배 참석 20%이내 조건 시점에서 조사하였음에 유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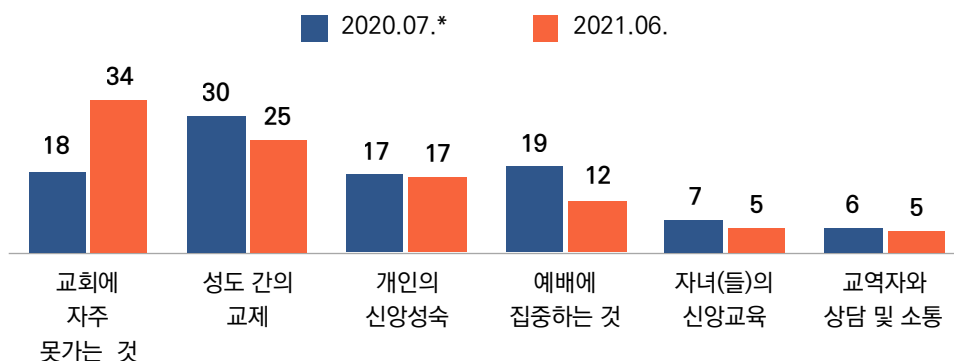
1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 어려운 점 1위, '교회에 자주 못가는 것'

-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개신교인 3명 중 1명(34%)이 '교회에 자주 못가는 것'을 꼽았다.
- 작년 7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성도간의 교제'가 1위를 차지했었는데, 올해는 '교회에 자주 못가는 것'이 1위를 차지해 장기간 예배 출석 제한으로 인해 교회 출석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 어려운 점(개신교인 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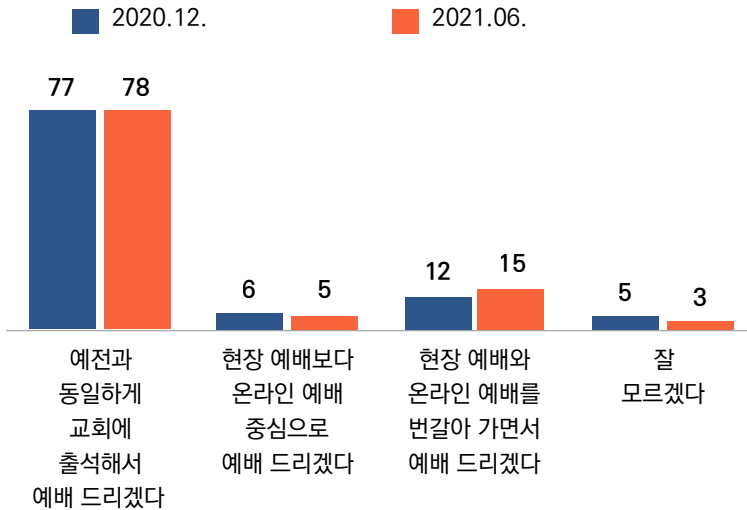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조사', 2020.10.15.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7.21.-07.29)

● 코로나 종식 후 ‘예전처럼 현장 예배드리겠다’ 78%

- 코로나 종식 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중 어떻게 드리고 싶은지 물었는데, 78%가 ‘예전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 해 12월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 지난 해 12월 조사 결과 대비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태도 비율이 줄어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겠다는 응답이 다소 높아졌다.

[그림] 코로나19 종식 후 주일예배 참석 예상(교회 출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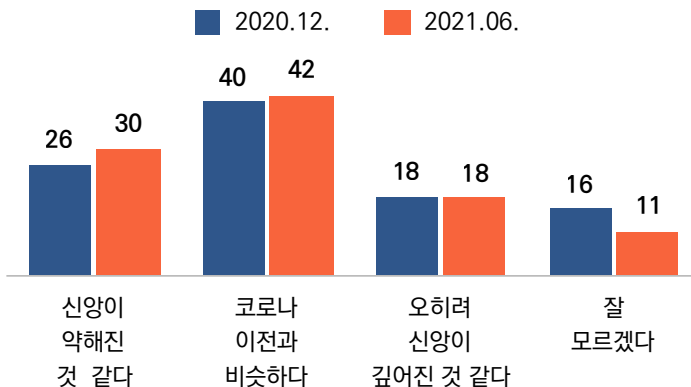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14.~11.23.

2

코로나19 이후 신앙 수준, 작년 말 이후 ‘더 약해졌다’ 비율 증가!

- 코로나19 이후 신앙 수준의 질적 변화를 측정해 보았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30%로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18%보다 11%p 더 높았다. 지난해 12월 조사와 비교해 신앙 약화 비율이 약간 증가됐다.
- 코로나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 약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신앙 수준 변화(개신교인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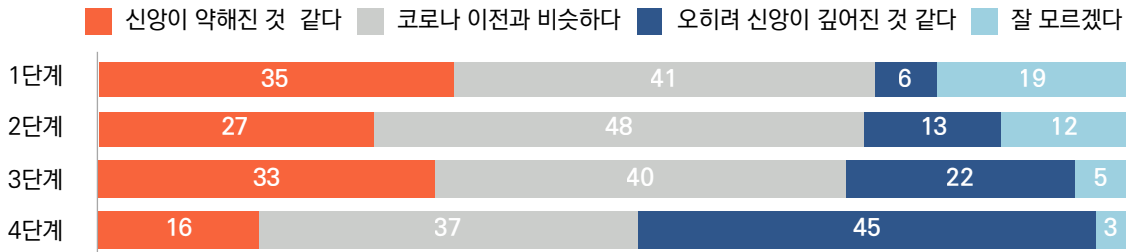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14.~11.23.

● 코로나19 이후 신앙의 양극화 현상 두드러져!

- 신앙 수준이 약한 사람은 코로나 이후 신앙이 더 약해진 반면, 신앙수준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이후 신앙이 더 강해지는 전형적인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신앙 수준 변화(신앙 수준별, 개신교인 전체)



* 신앙 수준 1)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3)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거의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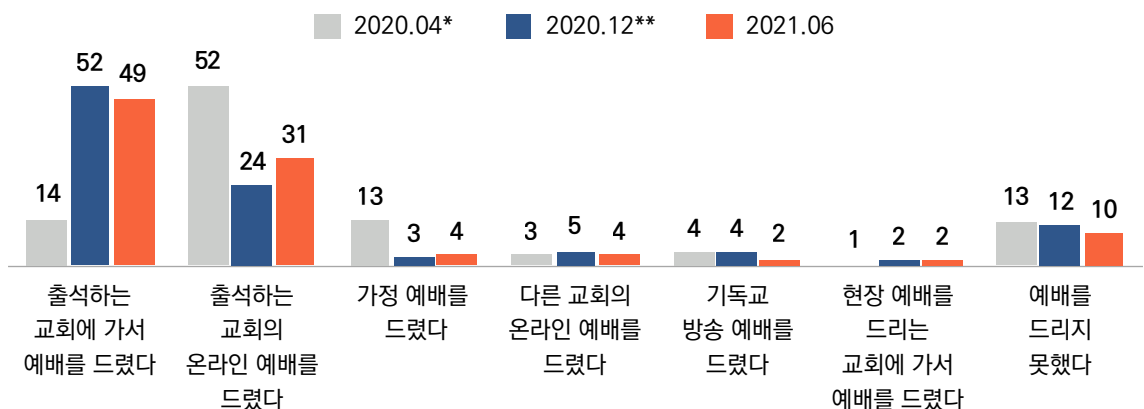
주일예배 참석 작년 말 이후, 온라인 예배자 증가하고 예배 불참자 비율 줄어들어!

- 지난 주일 예배 참석 비율은 '현장 예배'(출석교회+타교회) 50%, '온라인 예배'(출석교회+타교회) 35%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비율은 10%였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현장 예배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데 온라인 예배 비율이 늘어났다.
- '예배를 드리지 못한' 비율은 지난해 4월 이후 소폭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2020.12 조사와 2021.06 조사는 수도권 방역 4단계 조치(2021.07.18~)이전인 예배 참석 20% 조건 시점에서 조사하였음

[그림] 지난 주일 예배 형태(교회 출석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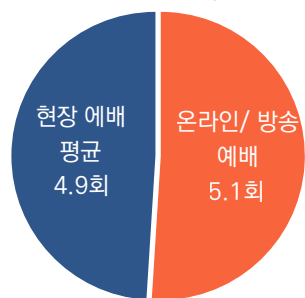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4.2.~4.6.

**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대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14.~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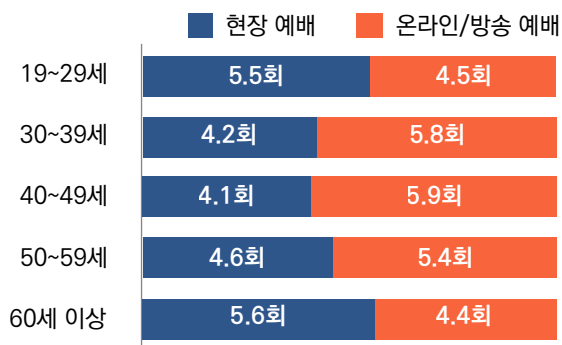
● 한 사람이 10번 예배드릴 경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각각 5회씩 드려!

- 올해 들어 주일예배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방송 예배를 드린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합을 10으로 했을 때, '온라인/방송 예배' 5.1회, '현장 예배' 4.9회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연령에 따라서는 '19~29세'와 '60세 이상'에서 현장 예배 비율이 높고, 30~40대에서 온라인/방송 예배 비율이 높다.
- 특히 중직자, 신앙 수준이 깊을수록, 소형 교회일수록 현장 예배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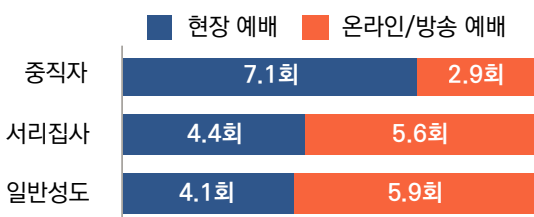
[그림] 현장 예배 : 온라인/방송 예배 비율
(교회 출석자, 10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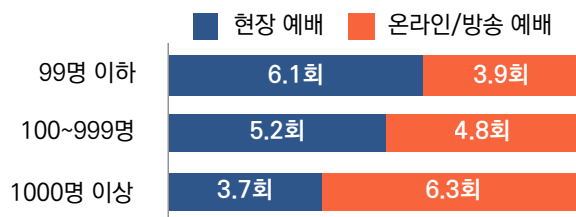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비율(교회 출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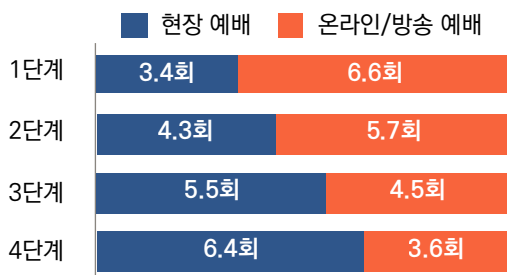
[그림] 교회 직분별(교회 출석자)



[그림] 출석 교회 교인 수(교회 출석자)



[그림] 신앙 수준별(교회 출석자)



* 신앙 수준 1)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3)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거의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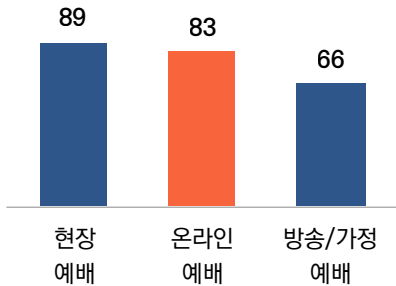
4



온라인 예배 만족도 83%, 평신도 사이에 안정적인 예배로 자리잡아!

- 지난 주일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현장 예배’ 89%, ‘온라인 예배’ 83%로 현장 예배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 만족도 역시 80%를 넘어서고 있어 온라인 예배가 평신도들 가운데 어느정도 안정적인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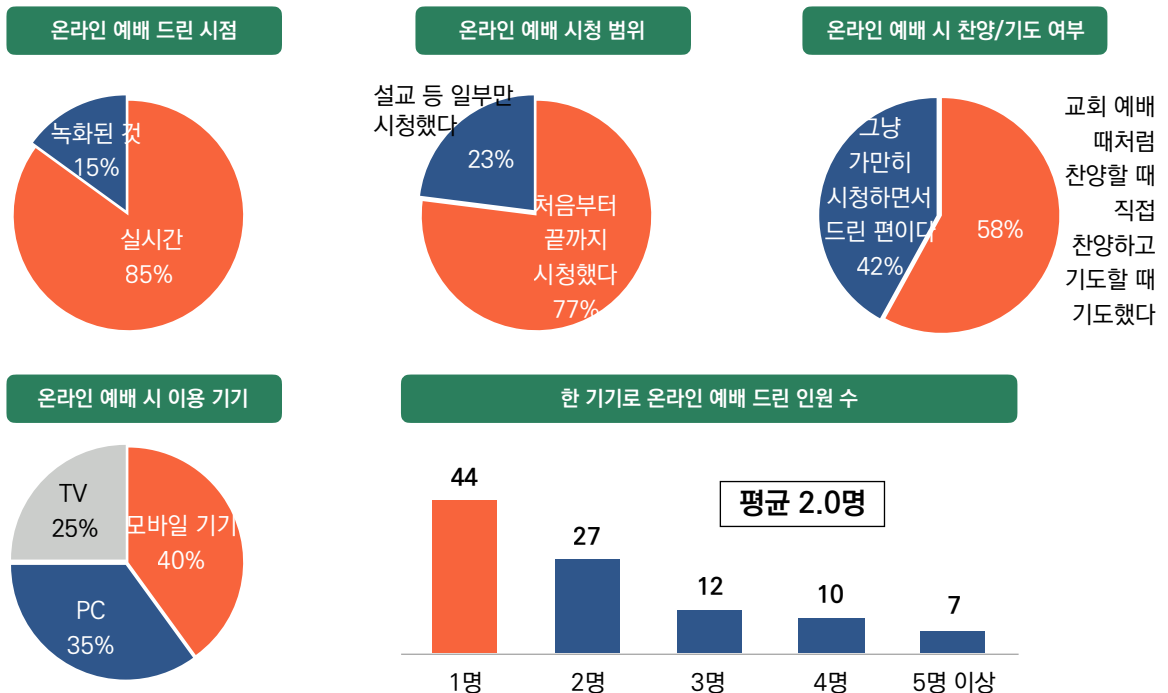
[그림] 지난 주일 예배별 만족도(4점 척도, 매우+약간 만족) (%)



● 온라인 예배, 대부분이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지만,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시청하는 경우가 42%나 됨

-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방식을 항목별로 질문했는데, 대부분(85%)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는 편(77%)이었다. 그러나 예배 때 소리내어 찬양 등을 부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시청하는 경우가 42%나 되었다.
- 온라인 예배 시 이용 기기는 모바일(40%)이 가장 많았고, 한번에 평균 2.0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교회마다 예배 유튜브 조회수에 얼마를 곱해야 온라인 예배자 수를 측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본 조사 결과 2.0을 곱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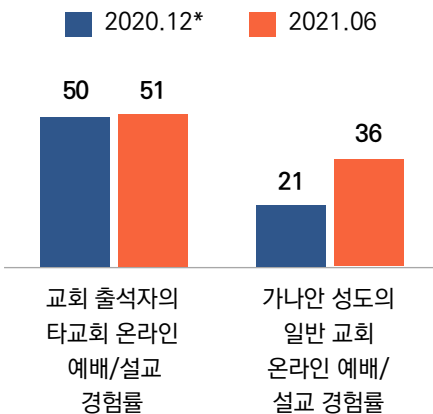
[그림] 온라인 예배 실태(지난 주 온라인 예배자)



● 지난 1주간 타 교회 온라인 예배/설교, 들은 경험(교회 출석자) 51%

- 교회 출석자에게 지난 한 주간 출석 교회 외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나 설교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물은 결과, 절반(51%)의 교회 출석자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나안성도의 경우 3명 중 1명 이상인 3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지난해 1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교회 출석자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가나안성도는 6개월 사이에 15%p 증가했다.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되고 온라인 설교도 늘어나면서 가나안성도가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설교 콘텐츠가 다양해짐에 따른 결과라 보여진다.

[그림] 지난 1주간 타교회 온라인 예배/설교 경험 (개신교인 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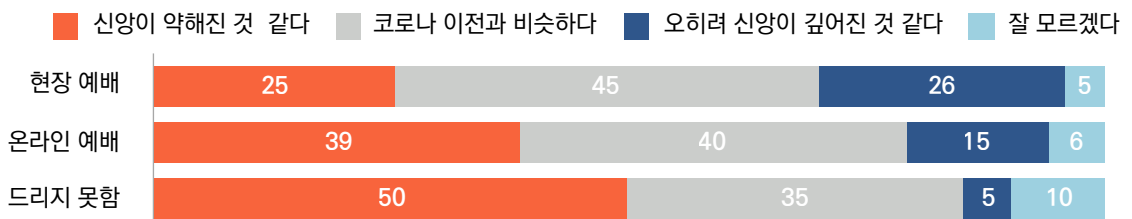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14.~11.23.

● 온라인 예배자의 신앙 약화 현상 나타나

- 온라인 예배자의 경우 본인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면서 한국 개신교인의 전반적인 신앙 약화가 우려된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신앙 수준 변화(지난 주일 드린 예배 형태별, 개신교인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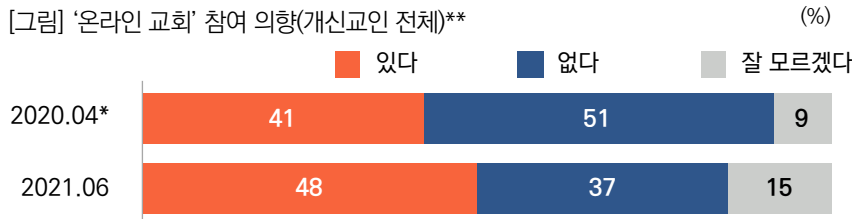
5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 2명 중 1명꼴(48%)!

-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프라인에서 가끔 모임을 갖는 형태의 ‘온라인 교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의 절반가량(48%)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4월보다 7%p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개신교인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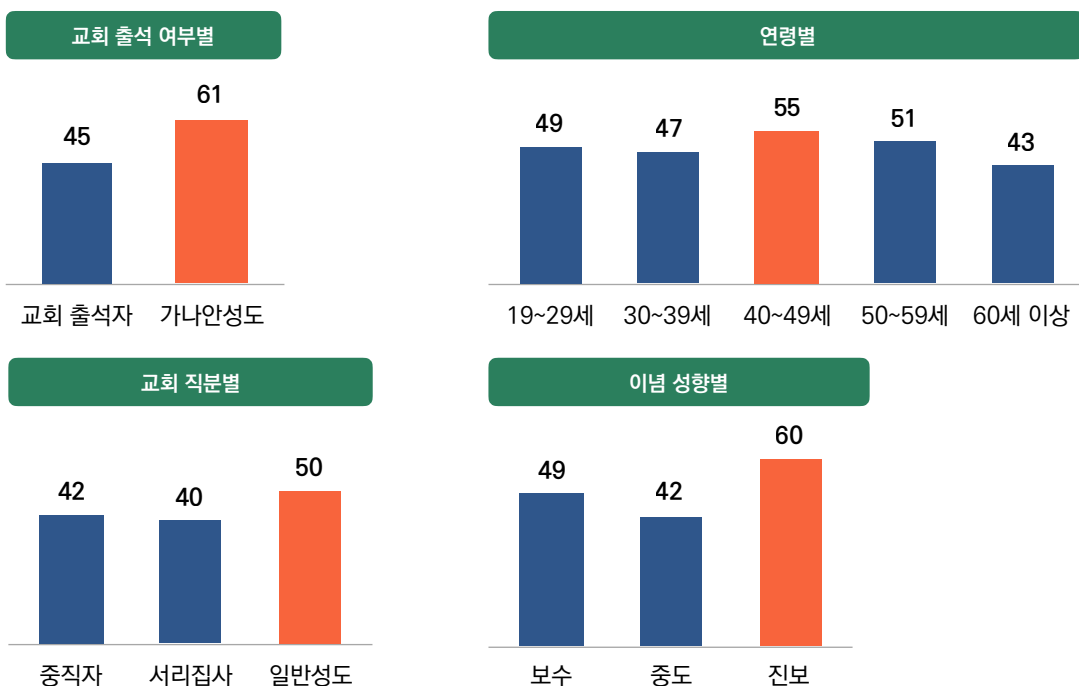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4.2.~4.6.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있다', '전혀+별로 없다' 비율임

● 가나안성도의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률, 무려 61%나 돼!

-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자는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의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교회 직분별로 중직자보다는 일반 성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보다 진보 성향층이 더 높았다.
- 이번 조사에서 특별한 발견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률이 교회 출석자보다는 가나안성도 층에서 더 높다는 점이다. 즉 교회 출석자 45%, 가나안성도 61%로 가나안성도의 의향률이 꽤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는 환경 변화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은 가나안성도 들을 온라인이지만 예배 현장으로 인도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온라인교회 참여 의향률(응답자 특성별, 개신교인 전체)*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있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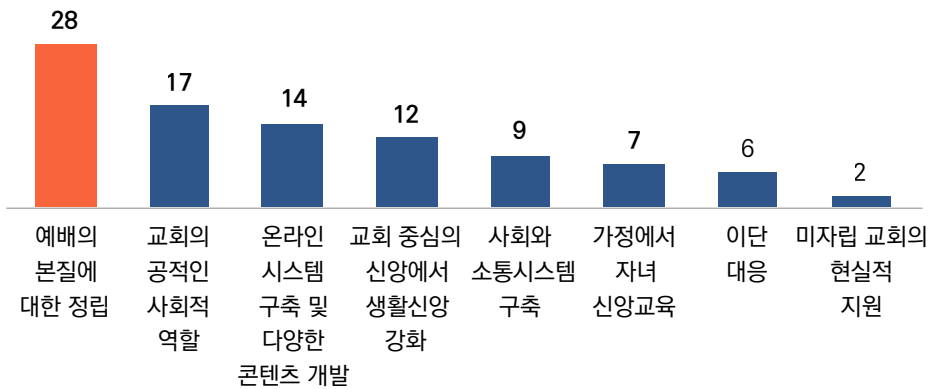
6

코로나19 시대 한국 교회가 관심가져야 할 분야,

① 예배의 본질 정립 ② 공적 역할 ③ 온라인 강화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 28%로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다음으로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17%),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14%)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그림]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 교회가 관심가져야 할 분야(개신교인 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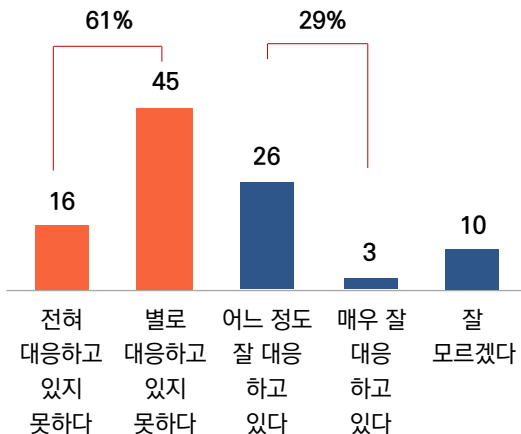
7

한국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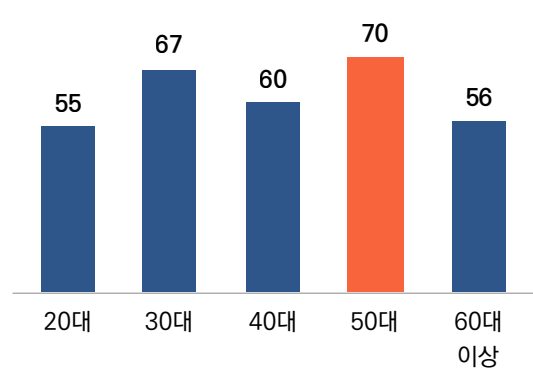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잘 못한다' 61%

- 한국 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적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대응 잘한다'(매우+어느정도) 29%, '대응 못한다'(전혀+별로) 61%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응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
- 한국 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대응 못한다'는 인식은 '50대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70%)을 보였는데, 이는 50대 연령층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리더십 그룹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림] 한국 교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정도 (개신교인 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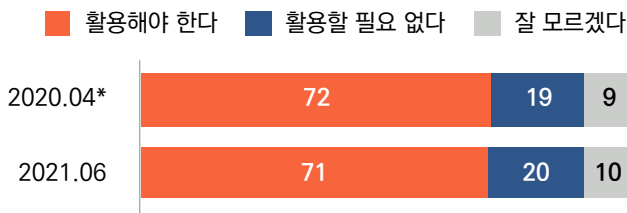
[그림] 한국 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잘 못한다' 비율(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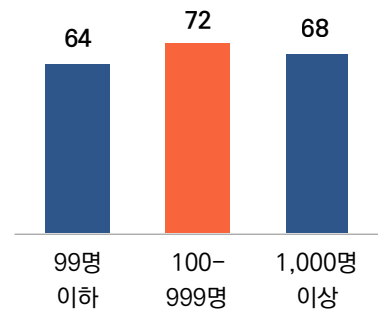
● 개신교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예배 시간에 ‘활용해야 한다’ 71%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예배시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1%가 ‘활용할 필요 있다’(어느 정도+적극)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 예배 시간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회 규모(출석 교인수)별로 살펴 보면, ‘99명 이하’ 64%, ‘100-999명’ 72%, ‘1,000명 이상’ 68%로 교회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99명 이하 소형 교회 교인들도 68%나 활용 필요성을 인식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예배 시간 활용에 대한 의견 (%)
(개신교인 전체)



[그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예배 시간 ‘활용해야 한다’ 의견(출석 교인수별) (%)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14.~11.23.

** 4점 척도 질문으로 ‘적극+어느정도’, ‘별로+절대로’ 비율임



시사점

코로나19는 개인과 사회의 여러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uncontact, 즉 '비대면 접촉'이다. 개인간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며, 사회적으로는 활력이 저하되었다. uncontact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예배'이다. 코로나19 이후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전면 대면 예배 금지, 10% 허용, 20% 허용 등을 반복해 왔다. 대면 예배 제한에 따라 교회가 선택할 수 있었던 해결책은 온라인 예배가 거의 유일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초창기에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를 둘러싸고 논쟁도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 외에는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은 사라졌다. 이제 온라인 예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배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83%로 매우 높았다는 것과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이 48%로 거의 절반이나 되었다는 사실이 온라인 예배는 개신교인 인식에 있어 일시적인 수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예배 종류가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도 잘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온라인 예배 시에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같이 하는 경우는 58%이고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시청하는 경우는 42%였다. 10명 가운데 4명은 예배를 '시청'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예배 참여도가 낮았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처럼 예배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배를 '시청'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점을 고민해야 한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도록 강조하고 채근할 것인지 아니면 이 현상을 인정하고 이에 맞도록 예배 순서와 내용을 조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장 예배를 그대로 생방송 형태로 송출하는 현재의 온라인 예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이라는 매체 이용 행태를 감안하여 현장 예배와 다른 형태의 온라인 예배를 별도로 기획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을 예배, 전도, 봉사, 교제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라도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사역은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새생명 축제 등과 같은 전도 활동, 독거 노인 방문과 같은 봉사 활동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 특히 교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성인데, 교제와 소그룹 모임이 제한되므로 공동체성을 강화할 기회가 봉쇄되었다. 즉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제 곧 With코로나 시대를 맞이할텐데, 교회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상황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더라도 교회의 사명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거나 아니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즉 With코로나 시대가 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떤 변곡점을 지나면 쉽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1990년말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이 크게 바뀐 것처럼 코로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면 예배가 정상화되고 교회 모임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와 내용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지혜를 모아 각 교회별 상황에 맞게 더욱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곧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여는 길이 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전직 대통령 사면!] 우리 국민,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높아!
2. [취약 중소기업 실태] 2020년 영업 이익으로 대출 이자 총당 못 하는 '취약 중소기업' 51%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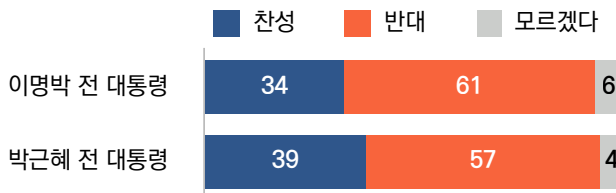
1. 전직 대통령 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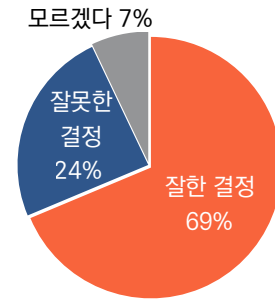
우리 국민,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높아!

- KBS가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물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는 ‘사면 반대’ 61%, ‘사면 찬성’ 34%,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반대’ 57%, ‘사면 찬성’ 39%로 두 전 대통령 모두 사면 반대 의견이 훨씬 높았다.
-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 68%, ‘잘못한 결정’ 24%로 전직 대통령 사면 의견과 달리 긍정 평가가 높았다.

[그림] 수감 중인 전직 두 대통령 사면 찬반 의견 (일반 국민) (%)



[그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평가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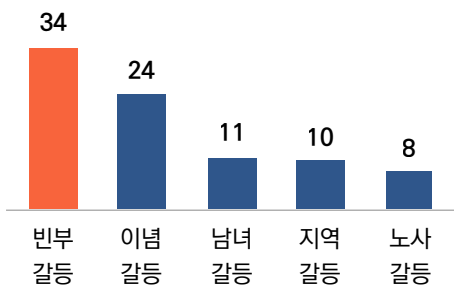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S/한국리서치, '8.15 특집 여론 조사', 2021.08.16.(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전화면접조사, 2021.08.12.-14)

●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갈등 1위, ‘빈부 갈등’ 34%

-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은 무엇일까? ‘빈부 갈등’ 34%, ‘이념 갈등’ 24%, ‘남녀 갈등’ 11% 등의 순으로,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국민들이 빈부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 응답을 살펴보면, ‘20대’는 남녀 갈등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30-50대’는 빈부 갈등, ‘60대 이상’에서는 이념 갈등(17%) 꼽았다. 특히 20-30대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갈등 요인인 ‘이념/지역 갈등’보다 ‘빈부와 남녀 갈등’이 높은 순위에 있는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이념 갈등이 높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 (일반 국민) (%)



[표] 연령별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 1-3위

연령	1위	2위	3위
18-29세	남녀 갈등 38%	빈부 갈등 30%	세대 갈등 9%
30대	빈부 갈등 34%	남녀 갈등 23%	이념 갈등 20%
40대	빈부 갈등 49%	이념 갈등 21%	노사 갈등 10%
50대	빈부 갈등 37%	이념 갈등 36%	지역 갈등 10%
60대	이념 갈등 32%	빈부 갈등 30%	지역 갈등 17%
70세 이상	이념 갈등 23%	빈부 갈등 22%	모름 21%

*자료 출처 : KBS/한국리서치, '8.15 특집 여론 조사', 2021.08.16.(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전화면접조사, 2021.08.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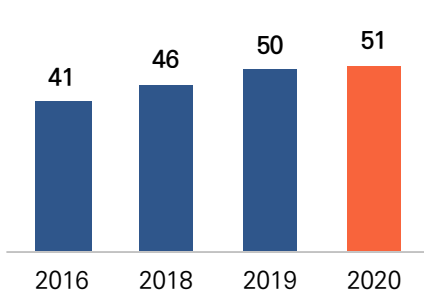
2. 취약 중소기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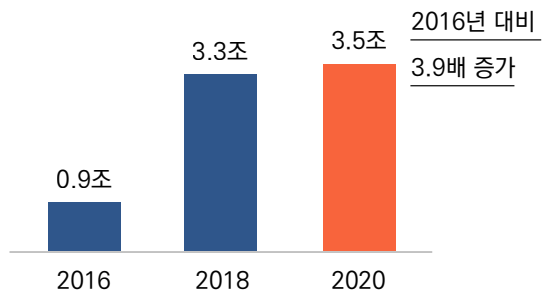
2020년 영업 이익으로 대출 이자 총당 못하는 '취약 중소기업' 51%

- 한국은행이 2020년 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1,24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 이익으로 대출 이자 비용을 총당하지 못하는 '취약 중소기업'을 분석하였는데, 중소기업의 51%가 취약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대출로 버티고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경영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취약 중소기업'은 '2016년' 41%, '2018년' 46%, '2019년' 50%, '2020년' 51%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취약 중소기업의 근본 문제는 영업 손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인데 취약 중소기업의 영업 손실이 2016에서 2020년까지 4년간 무려 3.9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정부의 금융지원 중단,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 조치들이 시행되면 이들 취약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금융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그림] 취약 중소기업** 연도별 추이 (%)



[그림] 취약 중소기업 영업 손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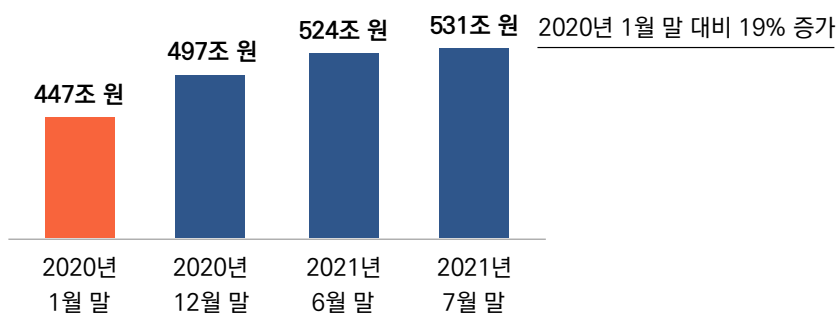


*자료 출처: 동아일보, 2021.08.10., '대출로 연명하던 중소기업..이자 낼 돈도 이젠 바닥',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10/108471726/1>
 **취약 중소기업: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총당하지 못하는 기업

● 중소기업 대출 잔액, 2020년 1월 이후 19% 증가

-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올 7월 말 기준 5대 시중 은행(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31조 원이었다. 이는 2020년 1월말 447조원에서 19% 증가한 수치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중소기업 대출 잔액(시중 5개 은행 기준)



*자료 출처: 동아일보, 2021.08.10., '대출로 연명하던 중소기업..이자 낼 돈도 이젠 바닥',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10/108471726/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61호\(2021년 8월 3주\) - 차기 정치 지도자 주요 인물별 호감도](#)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42호\(2021년 8월 3주\) 대통령 국정 평가, 대선후보 적합도 등](#)

[돌아온 정치의 계절, 여론조사 결과 제대로 읽는 법](#)

시사인_2021.08.16.

[정권 유지·교체 놓고 30대와 50대 표심 '정반대 흐름'](#)

뉴스스_2021.08.16.

사회

[자해는 살려달라는 SOS...코로나시대 10대들이 위험하다](#)

매일경제_2021.08.15.

[인구 대지진속 100년 후 강남·관악·광진·마포만 생존?](#)

연합뉴스_2021.08.19.

['내 집 마련' 바람 더 커졌는데...소득 압도해버린 집값](#)

노컷뉴스_2021.08.16.

일반

[병사에게 휴대전화 쥐여준 지 1년... 당나라 군대일까, 당당한 권리일까](#)

조선일보_2021.08.14.

[구급대원 절반 자가격리 경험 "병실 대기 중 접촉도"](#)

한겨레_2021.08.17.

경제

["치킨배달비 6,000원, 남는 게 없다" 폐업률 78%](#)

중앙일보_2021.08.14.

[직원 둔 자영업자 코로나 이후 24.6만명 ↓ ...40·50대 19.6만명](#)

연합뉴스_2021.08.15.

[국내 부동산 매입 많은 외국인은?...중국인이 9년째 1위](#)

연합뉴스_2021.08.17.

종교

[미군·동맹군 사망자 3천500명...숫자로 본 아프간 전쟁](#)

연합뉴스_2021.08.17.

[전경련 "한국 갈등지수, OECD 30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아"](#)

연합뉴스_2021.08.19.

종
교
/
트
렌
드

[저출산·고령화 속 코로나까지... 교인 수 가파르게 줄었다](#)

국민일보_2021.08.17.

["5060 폰대보다 더 싫다...3040 젊꼰에 질려 이직한다"](#)

매일경제_2021.08.18.

["마음 졸이는 주식·코인 L.L" ...부담 없고 쏠쏠한 'Z세대 슈테크'](#)

경향신문_2021.08.16.

이슈큐레이션=메타버스

[가상현실, 더 이상 가상이 아니다](#)

한국기독교공보_2021.07.22.

[상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기독교공보_2021.08.10.

[스마트폰 다음은 메타버스? '고단한 현실의 탈출구' 된 가상 천국'](#)

한국일보_2021.08.16.

넘버즈 칼럼

온라인 예배의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종교사회학)

이번 예정 통합 교단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를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년 반 사이에 일반 신자와 목회자의 의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적조사를 한 것으로, 코로나19가 목회와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조사 결과 중에 개신교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교인들이 어느 정도 이 상황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주중 신앙 활동도 온라인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하고 있었다. 온라인예배 만족도는 현장예배보다는 다소 적지만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예배가 주일 예배로써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나안 성도들도 절반 정도가 유튜브로 기독교 콘텐츠를 접하고 있었고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은 60%에 이르러 이들의 예배 접촉률을 상승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공동체성은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지만 온라인에서 공동체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교회 공동체의 근간인 소그룹 참석률은 코로나 상황에서 크게 감소했고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 소그룹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공식 소그룹 모임은 당분간 어렵더라도 소그룹 멤버 중에 일대일 만남이나 4인 이하 모임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소그룹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신앙을 더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라도 현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예배자의 경우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린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드린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예배 때 찬양이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드린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내용 면에서 부실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을 보면 한동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온라인예배와 현장 예배의 상호보완적 운영이 관건이다.

특히 대형교회에서는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온라인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반면에 소형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았고 온라인예배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15.9%의 목회자는 코로나 종식 후에 교인이 늘어날 것 같다고 답했는데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이 응답률이 높았다. 그리고 대형교회 교인들에게서 코로나 종식 후에 교회에 덜 갈 것 같거나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것은 대형 교회들에게는 불안 요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장 예배를 임의로 확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방역지침도 따라야 하지만 실제로 대규모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회 안팎으로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신앙단계가 낮은 신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이 더 약해졌다는 응답이 많으므로 이들이 스스로 성경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일상생활 자체를 살아 있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개신교가 따르는 종교개혁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자립적인 신앙과 일상에서의 생활 신앙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와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균형 잡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횡설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아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렬,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여민, 이광호, 이달훈,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